



평화1동 지사협,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추진

전주시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귀덕)은 24일 평화동 내 주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이웃사랑 CMS(정기후원 사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홍보문과 홍보물품(마스크)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홍보하고 주거 취약과 생계 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과 나눔문화 확산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최귀덕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평화동민의 특화사업을 홍보할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 따뜻한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아침밥상”

전주 와인문화아카데미, 엄마의 밥상에 성금 200만원 기부

전주 와인문화아카데미(회장 심진찬)가 24일 매일 아침 저소득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주와인문화아카데미는 지난 2016년 저소득층을 위한 쌀 100포대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회원들의 회비 중 일정 부분을 모아 엄마의 밥상에 기부하며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왔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엄마의 밥상을 준



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심진찬 전주 와인문화아카데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아침 밥상 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와인문화아카데미는 매너와 에티켓에 기초한 바른 와인문화 전파를 기본방향으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로 16년째 이어온 동호회다. /김윤상 기자



전주 농민회, 노인복지 협회에 백미 기부

전주시 농민회(회장 이경수)는 24일 전주시 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장 김윤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쌀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전주시 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19개소의 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경수 전주시 농민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 농민회는 지속가능한 전주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 물품·성금 지원 및 코로나19 소독봉사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평화사회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 챌린지로 탄소중립실천



군산 흥남동, 수집 강박증 어르신 쓰레기 치워

군산시 흥남동은 자원봉사 단체인 세노이봉사단(단장 채영숙)과 합동으로 수집 강박증이 있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 개선 대상 가구는 홀몸 어르신 세대로 출입문 안과 밖, 그리고 좁은 골목에 5톤 불량의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가득 차 건강과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자력으로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웃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주민센터와 봉사단체가 합동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줘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채영숙 단장은 "우리 봉사단의 작은 실천으로 어르신이 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숙자 흥남동장은 "세노이봉사단에 감사드리며"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화)은 지역사회의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중립실천방법으로 '에코백 살리기 131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코백 살리기 131운동에서 131은 에코백 환형손익분기점을 뜻하는 숫자로, 에코백이 최소 130회 이상 사용해야만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환경을 위해 만들어지는 에코백이 오히려 환경오염에 일조하지 않도록 다회 사용되는 자원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에코백 살리기 131운동은 릴레이 챌린지로, 지역사회의 기관·단체가 임직원과 함께, 에코백을 모아 나눔에 동참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부된 에코백은 공유 장바구니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평화사회복지관에서는 이번 챌린지에 앞서 평화동 관내 3군데의 공유 장바구니함을 제작·비치했고, 지난 18일에는 지역주민에게 공유 장바구니 사용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 생활 속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성동화 관장은 "에코백을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평화동에서 시작하지만, 전주시 전체가 동참하는 지역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관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안창진 본부장, 전주시의회 이남숙 시의원을 지명했다. /유호상 기자



장계농협, 봄맞이 하천 환경정화 실시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24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 전북농촌지원단(단장 정현주), 농가주부모임(회장 임명순), 고향주부모임(회장 송합순)과 함께 장수군 장계면 하천 산책로의 쓰레기와 애완동물 배설물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협 임직원과 여성조직 봉사단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가 오는 낱새 속에서도 장수군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곽점용 조합장은 "장계면 일대 소하천 환경정화를 위하여, 관심과 봉사를 실천해주시는 농가주부모임과 고향주부모임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지부장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보전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 되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동부교회, 진북동에 백미 10kg 100포 기탁

전주동부교회(담임목사 김종철)는 24일 진북동주민센터(동장 양정원)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진북동 관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철 담임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백미를 마련했다"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진북동에도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